

2011. 6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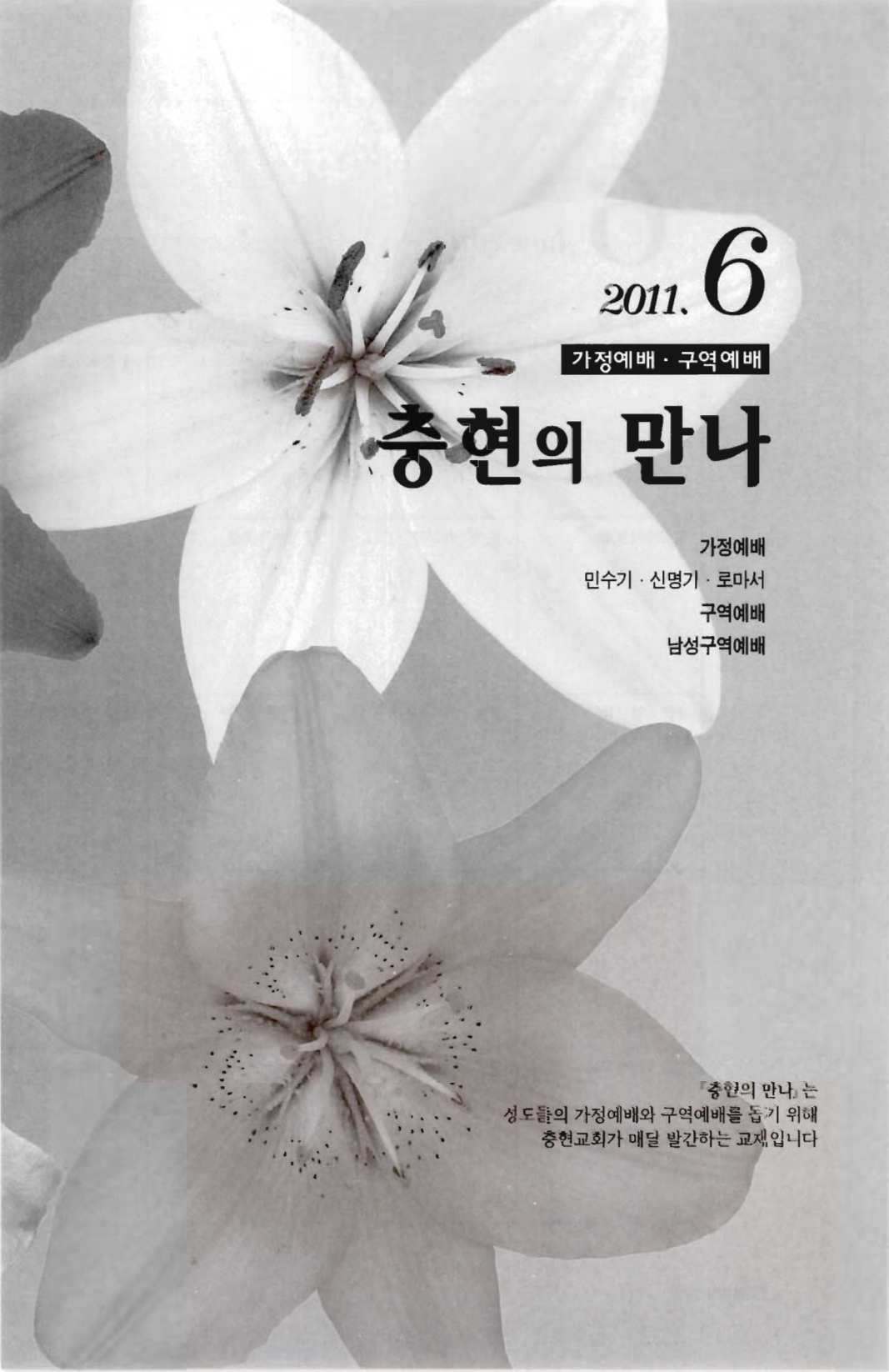
민수기 · 신명기 · 로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2011. 6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민수기 · 신명기 · 로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6 June 2011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민수기 26장
5 민수기 30장	6 민수기 31장	7 민수기 32장	8 민수기 33장
12 신명기 1장	13 신명기 2장	14 신명기 3장	15 신명기 4장
19 신명기 8장	20 로마서 6장	21 로마서 7장	22 로마서 8장
26 로마서 12장	27 로마서 13장	28 로마서 14장	29 로마서 15장

July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2 민수기 27장

9 민수기 34장

16 신명기 5장

23 로마서 9장

30 로마서 16장

금요일

3 민수기 28장

10 민수기 35장

17 신명기 6장

24 로마서 10장

토요일

4 민수기 29장

11 민수기 36장

18 신명기 7장

25 로마서 11장

교회 주요일정

- 6월 12일
오순절(성령강림주일)
- 6월 24일
제2차 정지기훈련
- 6월 26일
제3차 학습세례식

나의 주요일정

1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4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2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3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4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5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6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7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달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9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본당 지하1층 시설공사와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10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

하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어떤 신자들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세계에는 구세주처럼 행동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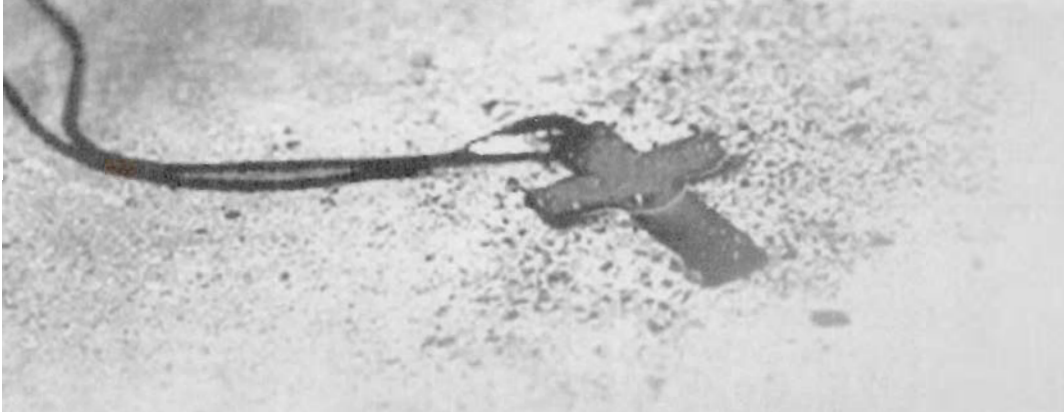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라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2011년 6월을 맞이하여 위인물사 김성관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 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사회자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가 · 정 · 예 · 배

매일성경독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

민수기 26장
찬송가 353장

목/상/노/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한 인구 조사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력 점검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가나안에서 받을 유업에 대한 분배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가나안 땅 분배 계획은 여호수아서 14~19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4:30)는 모두 가데스 반역 사건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나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않았던 순결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자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삶의 평화와 안정만을 추구할 뿐 그릇된 것에 부딪쳐서 대항하기를 꺼려합니다. 이것은 현실에 안주하여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전투하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란 천상의 '승리하는 교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지상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녀야 할 신앙과 삶의 태도를 표현해 주는 용어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흐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 그 땅을 제비 뽑아(55절) : 제비뽑기는 각 지파의 영토 규모를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의 어느 곳에 정착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이십 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민 26:2)

기도제목

- 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전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 ② 2011년, 총현의 모든 성도가 거둔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여자 상속자

가나안 영토 분할에 있어서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26:55)는 분배 원칙으로 인해 생겨난 상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는 남성 위주의 법질서가 통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여자들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남편이나 아버지의 소유물로 규정되었습니다(출 20:17 ; 신 5:21). 특히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소알-지배자’, ‘아돈-주님’ 등의 칭호로 부름으로써 스스로 그 지위를 낮추었습니다(창 18:12). 그런 이유로 인해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에 남자 상속자가 없을 경우 여자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 특례법을 신설하심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셨습니다(7~8절). 이 신설법은 한 가문의 영구적 존속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법과 더불어 모세의 죽음 예고와 새로운 지도자의 공적인 피택을 다루고 있습니다(12~20절).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는 결국 광야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분을 내거나 자신의 고생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여호와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항변할 수 없게 됩니다. 그저 맡겨 주신 일이나 직분이 있으면 감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모세보다는 아닐 것이고, 아무리 헌신 하더라도 모세보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감사뿐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민 27:7)

민수기 27장
찬송가 435장

묵/참/노/트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예수님과 관계 맺음으로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제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28장
찬송가 298장

목/상/노/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제사 규례를 여러 절기와 더불어 하나의 통일되고 조직적인 법전으로 완성하여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사 규례는 15장과 출 23장, 29장, 31장 및 레 23장 등에 제시된 바 있으나 그것들은 산만하고 단편적인 규례들이었기에 통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계획적인 교제가 제사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제사는 절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절기와 더불어 그 제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율법 조항 이면서도 제사 규례를 계속 보완하고 종합하는 것을 거듭해야 하는 이유는 제사 율법이 지닌 불완전성, 즉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제사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신성하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제사법은 어디까지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예표해 주는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기능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적 굴레에 속박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그분과의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적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복음과 관계를 맺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민 28:2)

기도제목

① 예수님으로 제물상이 드러진 영원한 제사의 감격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기쁨의 예배

4

7월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던 기념 절기들로 7월 1일의 나팔절(1~6절), 10일의 속죄일(7~11절), 15일의 초막절(12~38절)에 드리는 절기 제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세 절기가 한 달에 집중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육체적 사기를 진작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 절기 기간 동안 모든 노동을 금지시켜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레 23:23~44). 여기에 제시된 은혜롭고 즐거운 축제들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예표하며(계 21:3~4)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확증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무거운 짐을 지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과 만나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은총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게 됩니다. 날마다 기쁨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을 만나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민 29:39)

민수기 29장

찬송가 217장

목/상/노/트

• 나팔을 불 날(1절) : 직역하면 '함성의 날'이다. 전쟁의 함성, 왕이 즉위할 때 지르던 환호, 절기를 알리는 나팔을 불 때 함께 지르던 함성 등을 말한다.

기도제목

① 언제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 계신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②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4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저는 3대째 이어져 온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승려 생활을 하셨고, 저 역시 원지도 모른 채 어려서부터 그 믿음과 풍습을 따라 생활해 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 봤더니 웬 할머니 두 분이 서 계셨고, 그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며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 당시 철 없던 저는 할머니들이 가시지 않자, 젊은 혈기에 그만 “예수쟁이들아 그만 떠들고 꺼져!”라며 소리를 지르며 쫓았습니다. 저의 무례한 행동에도 두 분은 오히려 절 불쌍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차분한 말로 엄숙하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시며, 아쉽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뒤돌아가셨습니다. ‘재수 없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겠구나’ 싶어 그 즉시 소금을 뿌렸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의 벅찬 기쁨과 주님께서 주신 열심을 따라가고 있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 지난 날에 저질렀던 막중한 그 죄악들에 소름이 끼치곤 합니다. 이런 죄인이 믿음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는 아직도 국경 분쟁의 불씨가 남아서인지,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역 중에 어느 집을 방문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느닷없이 큰소리로 나가라고 하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외위간 전도 말씀을 차분하게 부르짖은 후 옆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불상을 놓고 향을 태우는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계속 큰 소리로 “나가라”고 저를 떠미는 통에 문 밖으로 쫓겨났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음 사역을 하려던 중에 과거 어린 시절 우리 집을 찾아 오셨던 두 할머니를 예수쟁이라고 쫓아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쫓겨나면서도 그런 저를 위해 하셨던 할머니들의 그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때 그 할머니들께서 기도하셨던 심정으로 저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령의 깨우침과 깊은 가르침이 다시 한 번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 나 자신도 어느새 예수쟁이가 되었구나!’ 주님의 역사가 광대하고도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 구호 한 구절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자. 아멘!”

김형철(집사, 16교구)

서원과 맹세

민수기 30장
찬송가 449장

목/상/노/트

히브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약속과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서원과 맹세를 했습니다(출 22:7,10~11).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약속이나 약속된 행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 아래 있음을 의식하고 행하였으므로 서원과 맹세에는 고도의 성실성과 진지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으로 강제적 의무 규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구약 시대에는 서원과 맹세의 이행이 강조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과 신실함을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질되어 신약의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만인 앞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행 어부와는 무관하게 서원과 맹세를 남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외식적 경건을 질타하셨으며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마 5장). 왜냐하면 아무리 맹세를 해도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주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시기에 우리는 서원이나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겸손히 순종할 뿐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민 30:2)

기도제목

① 우리는 서원을 지킬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복음의 원수

6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한 보복전이나 탈취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을 배제하고 오직 가나안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방해자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애쓰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해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세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거듭 말씀합니다(2~3절).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나 개인적으로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부인이 안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 내 사랑, 내 자량이 없는데 원수가 생길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일 뿐입니다. 이 원수는 십자가를 흐리게 하고 십자가의 도를 방해하는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하여도 복음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찬송가 358장

목/상/노/트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도(민 31:3)

기도제목

① 내 원수는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원수는 미워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실패를 동반한 열심

민수기 32장
찬송가 430장

묵/상/노/트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입국의 발판을 구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망각하고 정복된 땅에서만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1~5절). 용감하기로 이름난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것을 종용함으로써(6~15절) 그들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에 계속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떼를 받았습니다(1절). 우리는 주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받고, 적게 주시면 적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짧은 인생 가운데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모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언제나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것에 머무르는 이상 진짜 신앙의 깊은 것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결국 많이 받은 그것이 도리어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반해 주는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어리석게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버립니다(19절). 영적인 실패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한걸음 한걸음 믿음의 발을 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민 32:19)

• **아셀 땅과 길르앗 땅(1절)** : 건장에 있는 왕의 대로, 시혼 왕과 옥 왕으로부터 빼앗은 땅이다.

• **여호와 앞에서(20절)** : '여호와 보다 앞서서'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명령을 따라' 또는 전쟁에서 군대와 함께 나가는 '여호와와의 곁 앞에서'란 뜻이다.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약속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에서 열심을 내다가 결국 망하고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민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출애굽의 전 여정

8

출애굽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최초 출발지인 애굽에서, 최종적으로 진을 쳤던 모압 평지까지는 일반 여행자가 일주일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여정에서의 41개 장소는 단순한 지명의 열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와 고난과 갈등, 눈물 및 은혜의 체험 등이 뒤섞인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며, 함축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명들의 대부분이 물과 음식을 얻을 수 없는 죽음의 땅들이었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은 죽음의 땅을 40년 동안 행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압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기록하다가 38절에는 아론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광야 40년의 수고를 무색하게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쌍하다”, “칭찬 받을 만하다” 등 그에 대한 평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께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나의 공로가 아닌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찬송가 459장

목/상/노/트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민 33:1)

기도제목

① 내 믿음의 여정이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론과 같이 값 없이 순종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에 배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9

영토의 경계와 분배자들

민수기 34장

찬송가 314장

묵/상/노/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남쪽 경계는 사해의 끝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돌고(3~5절), 서쪽은 가데스 바네아와 신 광야를 지나 지중해에 이릅니다(6절). 북쪽은 지중해에서 하맛 어귀를 지나 오늘날의 시리아와 레바논의 일부를 포함한 지역에 이르고(7~9절), 동쪽은 긴네렛(갈릴리)의 동쪽 언덕을 지나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 사해에 이릅니다(10~12절).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 과정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할 만큼 큰 영토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배할 새로운 세대의 책임자들로 여호수아와 엘리아살과 새로운 족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들 중에 갈렙을 제외하면 광야에서 죽은 첫 세대의 족장들과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순종한 갈렙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난관과 피흘림이 있어야 함에도 하나님께서 이같은 청사진을 펼치신 것은 가나안 땅이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임을 깨우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욱이 세세한 지명을 지적하시면서 영토의 규모를 미리 확정시키신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시 16:6). 하나님은 인간의 거주지를 정하시는 분으로(행 17:26)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 주를 의뢰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민 34:2)

• 긴네렛(해변(11절) : 신약에 게네사렛 혹은 '디베라 호수'나 갈릴리 호수'로 알려진 호수이다

기도제목

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우리가 구할 것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대제사장의 죽음

일반 지파들에게 주어진 영토 분할 준비가 완료된 후(34장) 성막 봉사를 위해 부름 받은 레위인들의 거주지에 관한 규례가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신 10:9) 레위인들에게는 오직 거룩한 일에 전념하라는 의미에서 별도의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으나(18:20,23) 그들의 거주지 및 백성들의 십일조 등으로 확보된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할당받은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의 도피처로 사용됨으로써 레위인들의 삶과 그 터전은 철저히 종교적임을 암시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 곳곳에 배치되어 백성들의 영적, 정신적 생활을 계도해 갔으며 무고한 자의 생명 보호와 피 흘림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등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도피성을 살인자를 위한 성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한 성이라(11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도피성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 대제사장이신 예수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도피성 자체만으로도 죄인인 우리에게는 큰 은혜 일진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언제나 십자가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민 35:28)

민수기 35장
찬송가 268장

목/상/노/트

기도제목

① 죽음으로 진정된 사랑을 보여주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팀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상속을 위한 십자가

민수기 36장
찬송가 341장

목/상/노/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과 그들 각 지파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축복의 보증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 땅이 보존되어야만 했습니다(27:1~11). 그런데 아들 위주의 상속 제도가 성행했던 이스라엘에서(신 21:16~17) 아들이 없는 가정은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습에 의한 불공평한 상속 제도를 새롭게 하셔서 딸들도 상속인이 될 수 있게 하는 파격적인 법률을 제정하셨습니다(27장).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만일 상속받은 여자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이전되어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속녀들이 자기 지파 내에서만 결혼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이 문제점을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규례의 계속적인 보완은 그 율법이 지니는 점진성과 예표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히 10:1).

슬로브핫의 딸들은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만 결혼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경계를 지켰을 뿐 아니라(신 19:14), 자기 기업의 영토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6절),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기업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구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이지만,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붙들어 맬 수 있다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좋아 보이는 상대가 있어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민 36:10)

기도제목

① 좋은 것을 좋게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 하소서. ② 현재 진행 중인 본당 지하1층 시설공사와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로 15:2)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오순절

오순절의 의미

'오순절'은 신약에서만 사용된 명칭이다(행 2:1, 20:16 ; 고전 16:8). 구약에서는 오순절 대신에 '추수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히브리어로는 '카 하카칠'이라고 하는데 '카'는 축제일을 뜻한다. 그리고 '하카칠'은 '하'라는 정관사 '그'(the)와 '카칠'로 이루어진 것인데 '카칠'은 '베다. 획득하다. 수확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열매를 거둠, 추수함'이라는 명사로 된 것이다. 이 단어는 곡식이 익어 거두고 수확하는 것을 나타내며 특별히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를 말한다. 구약의 맥추절(추수절)은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이지만, 신약의 오순절은 절기로 보아 첫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때이다. 영적으로 신령한 첫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때인 것이다. 즉,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로 천국의 곡식을 거두어 지상의 교회에 들이는 절기이다.

오순절의 유래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말씀한다. 또한 신명기 16장 9~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다. 무교절 때에 초실절, 즉 처음 익은 이삭을 거두어 하나님께 요제(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법)로 드린 후에 7주를 계수하게 되었다. 1주간이 7일이므로 거기에 다시 7주간을 곱하니 49일이 된다. 그 49일이 지난 다음날이 50일이 되는데 이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축복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 그 예물은 맥추감사 예물이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이라고 호칭하게 된 것이다. 이 절기는 유월절을 지나 50일 만에 지키게 되었으므로 오순절(순=10일)이 된다.

오순절은 초실절, 즉 맥추절의 신약적인 명칭이다.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개명되기까지는 1500년의 역사가 흘러갔으나 그 기간 중 B.C. 400년까지는 이 맥추절이 오순절로 된 증거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약의 오순절이 구약의 맥추절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오순절이 영적인 면에서 성취된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이다. 즉 오순절은 초대 교회의 성령강림으로 완성된 것이다. 성령강림으로 초대 성도들이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결과 이것이 후대 교회에 유명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곧 성령강림절이다.

뒤에 있는 답을 바라보라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5절)에서 40년간의 광야 유랑 세대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제 2의 언약 백성에게 그 땅을 앞두고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증보자 모세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잘 따랐지만, 어려운 현실을 만나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과 불순종의 늪에 빠졌습니다(19~33절). 언약 백성의 불신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없이 행한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34~46절).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39절). 그러나 불신앙을 차마 보지 못하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객관적인 보고와 무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보고는 10명의 보고였는데 이들은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보고는 무모해 보이는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2명의 믿음의 보고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긍정적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실패하되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신명기 1장

찬송가 363장

목/창/노/트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레위기 1:33)

기도제목

①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주옵소서. ②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4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신명기 2장
찬송가 150장

목/상/노/트

때가 되매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6~7절). 그들은 에돔 지역을 지나면서 양식과 물을 살 돈도 충분히 있었고, 광야 생활 동안 결코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살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38년 동안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불신하고 불순종한 제1세대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14~1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보여주시며(24~25절),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려는 시혼과 그의 백성을 물리쳐 주셨습니다(31~35절).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지도 이 세상이 아닙니다. 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가 되매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소망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불편하기는 했어도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이 비록 광야 같이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언제나 참 기쁨과 승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닐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신 2:7)

기도제목

① 40년을 한결 같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달려 가게 하소서. ② 월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순종과 포기

14

이스라엘에게 바산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헤스본에서 행한 것처럼 바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명령에 담대히 순종할 때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1~4절). 이스라엘이 정복한 영토를 르우벤, 갓, 므나셋 반 지파에게 나눠주었는데 이는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게 될 몫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12~17절). 모세는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에게 나머지 이스라엘 형제들의 선봉이 되어 함께 싸울 것을 권고합니다(18~20절). 모세는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 해도 족하니'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21~27절).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타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자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계속 신뢰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장차 부활의 몸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로 8:18). 바산 왕 옥의 거대한 철 침상(11절)은 아낙 자손의 장대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반대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신 3:22)

신명기 3장

찬송가 425장

목/상/노/트

·이르굽 온 재방(4절) : 바산을 가리키는 별칭이다.

기도제목

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뿌리를 도려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여호와께 붙어

신명기 4장
찬송가 312장

목/상/노/트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언약 백성에게, 과거 바알브올에서의 불 순종과 호렙 산에서 두 돌판을 받은 때를 떠올리며 여호와와 명령을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1~14절). 바알브올 사건 때 바알을 따라간 사람들은 모두 진멸당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4절) 자들만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민족들 앞에 지혜와 슬기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 산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약속을 재확인시키십니다(15~31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신은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권고합니다(32~43절).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삶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칭찬할 만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이며, 진정한 영광이 됩니다. 내 의지와 뜻을 펼치기 위해 십자가에 붙어 있던 나를 떼어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나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이것만이 세상에서 크나큰 위로와 유일한 자랑이 되며, 최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 **바알브올의 일(3절)**: 이스라엘이 싯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란히 바알브올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가리킨다(민 25:1~9).
- **쇠 물우물(20절)**: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것을 상징한다(렘 17: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신 4:4)

기도제목

① 나의 외적인 조건이나 주위의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율법의 능력

16

모세는 1:1~4:43에서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권고하였고, 이제는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강론합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십계명(출 20:2~17)을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십니다. 이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3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삼, 사 대 자손들에게까지 갇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천 대까지 베풀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진노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9~10절).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22~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두려워하였기에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일한 중보자가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답전 2:5).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출 20:2).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후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처절함을 깨닫게 하는 법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율법에는 분명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결되었고 그 목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율법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신 5:6)

신명기 5장

찬송가 369장

목/상/노/트

기도제목

① 율법의 능력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찬송가 205장

묵/상/노/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와 그 자손들에게, 그 땅에서 조상들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1~9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풍성한 번영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10~19절). 또한 여호와 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후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20~25절). 하나님은 구원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영원히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구속의 사건과 그로 말미암은 은혜를 두고두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심령에 먼저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지도 않는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것은 결국 외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간직한 복음의 말씀을 자녀들의 머릿속에, 삶 속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쳐 천국 일꾼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복음과 진리가 자녀들 속에 들어가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종으로 세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먼저 세움을 받고, 자녀들 또한 외식하는 자가 아닌 진짜 천국 일꾼들로 양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7)

기도제목

① 말씀을 먼저 내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택함의 은혜

18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1~5절).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6~11절). 아무런 조건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물질적인 풍성함을 주시며(12~14절), 말씀을 지키는 자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 주십니다(15절).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약속의 땅에서 모든 대적들을 몰아내 주십니다(17~26절).

이스라엘을 택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며 강하시고 부요하심을 나타내심입니다(고전 1:26~27).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감사합니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만한 것을 지킨다 해도 감사를 잃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벌써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없고 주님만이 있는 진짜 믿음의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신 7:7)

신명기 7장

찬송가 434장

목/상/노/트

기도제목

① 모든 사람보다 가장 작은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어!

(디모데전서 1:15)

삶이 복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다(고전 2:1~2, 1:18).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행
16:30~31)이며, 이 복음이 디모데전서 1:15에 모두 있다.

① 죄인 죄인은 곧 우리대(롬 3:9~10 ; 사 53:6). 구원의 대상은 선하고 의
로운 자가 아닌, 죄인이다. 조금이라도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는 죄인이 아니
다(사 1:18). 죄인의 범위는 선함과 조건, 환경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유
1:23). 죄는 저주받은 것이대(엡 2:2~3). 죄는 사망을 가져다주고 죄가 다스리
는 곳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죽어버린다(벧전 2:22~24). 우리 안에 어떤 갈망
이 있다면 주님의 선물이며, 기도가 있다면 주님의 숨결이고, 죄짐에 눌려 깊은
한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대(엡 2:12~13).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지금, 죄인들은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엡 2:13, 16, 19). 지금 주님은 죄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음성을 외치고 계
신다.

②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대(요 3:17~19). 구원은 우리의 수고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대(행 4:10~12). 구원은 복음을 믿을
때 영원토록 주어진다(눅 19:9~10 ; 롬 8:1~2).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복음이다. 복음은 구원의 때와 어떤 계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요 5:6, 8). 예수님은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의 심령이 죄를 미워하고 순결해지기를 원하신다(롬 5:8~11). 그리스도께서 홀로 통치하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갈 2:20 ; 마 28:18~20). 구원받은 증거는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③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눅 1:31~33).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자다(마 1:20~23).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사 9:6~7, 4:18~19). 죄인을 구원할 자는 결코 동정녀 마리아나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다(마 1:21 ; 눅 2:14 ; 요 3:16). 모든 만물의 창조주께서 죄인을 구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히 1:2~3).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그의 이름을 간직하는 자가 되자.

④ 그의 행하심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다(요 1:1~4, 10~11, 14). 주님은 거룩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이 세상에 거하셨다(눅 2:23).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사역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는 것이었다(눅 23:44~47). 이 복된 영광스러운 복음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제목이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패다. 그리스도 사역 안에는 창조에도, 섭리에도, 구원에도 실패는 없다(요 19:30). 구원받는 이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원한다(롬 10:12~13).

⑤ 영접 주님 앞에 먼저 죄인임을 고백한 후 따르는 것이 겸손이다(고전 15:31).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과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엡 3:17~19). 모든 선행과 봉사를 나열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과수대(롬 3:25~27). 예수께서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리다. 이 진리를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 맡기자(요일 5:1, 4~5, 11~12 ; 히 11:6).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님은 당신을 꼭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내 영혼의 힘

신명기 8장
찬송가 343장

묵/상/노/트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낮추시며”, “시험하시”, “알려하심”이었습니다(2절). 시험과 연단을 통해 그들이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의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1~3, 16절).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듯 자기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이는 분명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4~5절),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길을 방황하던 그들을 아람담과 풍성한 옥도로 인도하시고, 배불리 먹이시며, 크게 번성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7~16절). 그러나 하나님의 과분한 복을 받으면서 번영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은 교만과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졌습니다(17~2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훈련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힘겨운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훈련에는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훈련시킬 때의 마음을 알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훈련에서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신 8:6)

기도제목

①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하루도 염마를 찾듯 예수님을 찾는 어린 아이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죄로부터의 해방

2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5장)”라는 선언을 통하여 6장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로마서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세례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1~14절)과 의를 섬기기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입니다(15~23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옛 사람, 곧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죄에 거하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은 의에게 종이 됨을 말합니다.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후로는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나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두 세계 사이에서 우리를 삼키려는 옛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로마서 6장

찬송가 272장

목/상/노/트

• 은사(23절) : 일반적으로 은사(카리스마)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선물로 은혜의 선물을 가리킨다. 이 은사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은혜(카리스마)는 사실은 이 용어의 의미를 보다 깊게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의 심령에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기도노트

21

로마서 7장
찬송가 261장

목/상/노/트

율법에 대하여 죽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5장), 죄로부터(6장), 율법으로부터(7장), 죽음으로부터(8장) 우리를 해방시켜주셨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혼인관계를 통한 결혼법으로부터 여인을 자유롭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음을 설명해 줍니다. 율법은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정욕을 일으켜 더욱더 범죄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자극하고 또 죄에게 힘을 실어 주어 마침내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파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7장에서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는 자의 어찌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을 자서전적인 형식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옛 세상과 새 세상, 마음과 육신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이 계속됩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아담을 머리로 하고 있는 사망의 몸인 인류의 한 지체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 사이에 있는 투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안에서 애통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애통 안에는 결코 의심이나 절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통 다음에 곧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 **정욕(5절)** : 여기에서 '정욕'으로 번역된 '파테마타'는 '파데마'의 복수형이다. 신약성경에서 16회 쓰인 이 단어는 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 괴로움 또는 내적 상태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열정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14회가 전자의 의미로 쓰였으며 갈 5:24과 본절에서만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 **율법 조문(6절)** : 이 말씀은 개역성경에서 '의문의 묵은 것'으로 표기되었다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율법 조문으로 바뀌었다. 원어로는 '그람마티스'로 '문자'라는 일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지고 갈아가는 그 길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② 청지기훈련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며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기도노트

생명의 성령의 법

22

두 가지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두 세계, 즉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장차 올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의 고난을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사랑입니다(30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3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모든 다른 권세자들은 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새 세계의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망을 포함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로마서 8장

찬송가 191장

목/상/노/트

• **적신(35절)** : 적신이라는 단어는 '검노테스'의 번역으로 '벌거벗음'이란 뜻이다. 이는 입을 옷이 변변치 않아 할렙을 만큼 궁핍한 것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회개하고, 복음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절대성

로마서 9장
찬송가 414장

목/상/노/트

• **궁홀히 여기대(15절)** : 본절에서 사용된 '궁홀히 여기'라는 의미의 동사는 '열레오'이다. 이는 타인의 비참함에 동정심을 느끼고 그러한 동정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말로써보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절에 같이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마음속의 내적인 동정심을 나타낸다.

성도의 구원에 관하여 진술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정은 근심이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부터 끊어진다는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택하신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뜻 안에서 절대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의 절대적인 뜻이며, 그가 베푸시는 자비하심과 진노하심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구원받는 이스라엘 자손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들조차도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내세우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제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가 부르시는 자에게만 주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부르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신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남은 자"(27절)들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사모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롬 9:18)

기도제목

① 주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궁홀히 여김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②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4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의

금요일

24

이스라엘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거부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이방인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거절한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음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림받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신뢰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우둔한 이방인들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곧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에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롬 10:4)

로마서 10장

찬송가 205장

목/상/노/트

• 무저갱(7절) : 개역성경에서는 음부로 번역된 이 용어는 헬라어 '아랫소스'로서 '밑', '바닥'을 뜻하는 '랫소스'와 부정불변사 '아'의 합성어이다. 문자적으로는 '밑이 없는', '바닥이 없는', '심연'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이 깊은 곳을 가리킨다. 특히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적그리스도나 귀신이나 영들을 위한 감옥으로 묘사된 대(대 831: 계 92, 117, 201).

기도제목

①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게 하소서, ② 제2차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로마서 11장
찬송가 501장

목/상/노/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으며, 그들의 실패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시기하도록 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었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을 바라보면서 결코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면, 오직 이방인으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십자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잡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의 판단을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 우둔하여졌느니라(7절) : 본질의 '우둔하여졌느니라'라는 표현은 개역성경에서 '완악하여졌느니라'라는 표현이다. 이는 '에포로데산'이란 표현인데 이 단어의 원형 '포로오'는 '돌'을 의미하는 포로스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돌 같이 굳게 하다', '무디게 하다', '어둡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기도제목

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만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가끔씩 의인, 가끔씩 죄인, 나는 괴수

25일 밤, 일을 마치고 아이와 늦게 도착한 나는 교회 복도에 주루룩 앉아 있는 사람들을 지나 이미 차 버린 본당 대신에 갈릴리홀로 들어갔다. 그때 바로 들리는 단어가 '죄인'이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함은 나를 모두에 포함시키면서 내가 죄인됨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느끼고 싶은 본능에 가까운 자기방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말한 때가 생각났다. 언젠가 남편이 미울 때 '그래도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괴로울 때가 있었다. 그때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당신 앞에 죄인이야?" 하면서 논쟁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은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죄'를 싫어하며 그 이름에 관계되기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다. 차라리 회개가 쉽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 나의 죄에 대해 생각한다. 말씀(율법)에 비춰서, 또 습관적으로 양심에 비추어, 또 가끔은 도덕적인 기준에 비추어 죄를 찾아 아뢰며 회개한다. 꼭 흰 바탕에 검은 얼룩 점들을 뽑아내어 회개로 지우듯이 말이다. 그렇게 하면 용서의 주님으로 인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때 나는 의로워지는 것 같다. 그렇게 나는 가끔씩 의로워진다. 또 가끔씩 교회 안에서, 생활에서 어떠한 일들을 잘했을 때, 칭찬받을 때, 스스로 뿌듯한 느낌이 들 때 난 의인이 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마음은 어느새 내게 의로움이 된다.

그러나 어떠한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나의 죄성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 의인일 때가 더 많은가 보다. 그렇게 이중적인 내게 목사님은 죄인! 죄인! 죄인!을 계속 말씀하셨다. 분명 모두가 아닌 내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었다. 마음 한쪽에선 '듣기 좋은 소리도 세 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은 법인데, 다 안다는데 왜 자꾸 외치실까?' 하면서 귀를 닫으려 했다. 그러나 내게 향하신 그 말씀은 나의 과수 됨을 보게 하셨다. 조금이라도 의롭게 생각되던 모든 것을 벗겨 버리시고 실체가 드러나 부끄러운 나 자신을 보게 하셨다. 어느새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다. 그 감사는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감사이며, 나의 죄인됨은 '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죄였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과 관계 맺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제게 기쁨이 됨은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재숙(집사, 10교구)

그리스도인의 삶

주일

26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우리의 지체됨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수한 사랑을 권고합니다. 이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뜻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에 기준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자들, 즉 새로운 것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반사로서 순수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삶, 주는 삶, 잃어버리는 삶, 죽는 삶은 오직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로마서 12장

찬송가 491장

목/상/노/트

· **손 대접하기** (13절) : 이 표현이 사용된 본문은 원어로 해석될 때 '친절히 대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라'가 된다. '손 대접하기'는 '친절히 대접하는', '후대하는' 등을 뜻하는 '필록세노스'에서 파생되었다. 그리고 '필록세노스'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낯선 사람', '손님'을 뜻하는 '크세노스'의 합성어로 '낯선 사람 혹은 손님을 사함하는 이'란 뜻이다.

기도제목

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하는 제3차 학습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찬송가 429장

목/창/노/트

현실이 요구하는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바울의 선언은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려 보고자 하는 견해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발언입니다.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나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한 없어질 것들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으로 다가올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낮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어야 합니다.

12장과 13장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마음의 윤리입니다. 바울은 마음과 행동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윤리는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서 시작하는 바울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윤리이며 사랑의 윤리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롬 13:12)

기도제목

-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랑으로 행하라

28

교회 안에 음식과 명절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양심과 종교적 확신으로 어떤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또 어떤 날을 다른 어떤 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1절)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3절).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분량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규정들을 따라서 먹고 안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비록 믿음의 행동일지라도 약한 자가 믿음 없이 따라 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한 자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므로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되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배려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자신의 자유를 자제하는 것은 음식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형제의 약함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은 세상이 원하는 넓은 길이 아니며 좁은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대(로 14:8)

로마서 14장

찬송가 220장

목/상/노/트

• **속된 것(14절)** : 속된 것으로 번역된 이 용어의 원형 '코이노스'의 기본 의미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등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는 '거룩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이란 측면에서 주로 가중한다(21:27), 부정한다(7:2)이라는 의미로 나타난다.

기도제목

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로마서 15장
찬송가 505장

독/상/노/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자기의 원수가 되도록 허용하시면서 고통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에 기초한 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는 말로 로마 교회를 향한 권고의 말과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14~33절).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직분임을 밝히며 이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한 바울은 이제 서쪽을 바라봅니다. 그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을 자비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은혜를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이 일에 로마의 성도들 역시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면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기도제목

①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의 넘침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문안 인사와 마지막 말씀

목요일

30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양식에 따른 바울의 개별적인 인사의 말과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는 비보를 천거합니다. 또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개별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분파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디모데를 소개한 뒤, 서신을 대필하는 더디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 형식의 장엄한 송영으로써 로마서를 통하여 전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핵심과 복음의 정수 그리고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 증거되었음을 밝히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온 이방인에게 전파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신다 선포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26명의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으로든 양으로든 바울의 전도 사역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으며, 각자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복음의 사역에 전력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함으로써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역자들 간에 서로 합심하여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함을 강조하는 구속사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선포 앞에서 한 자녀된 성도는 마땅히 서로를 섬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롬 16:27)

로마서 16장

찬송가 508장

목/상/노/트

• **재무관(23절)**: 이 용어는 에라스도의 공식 직위명이다. 그는 헬라의 대도시였던 고린도시의 재무관이라는 높은 자위에 있었다. '재무'로 번역된 '오이코노모스'는 '청지기', '관리인'을 뜻하는 말이다. 이 용어는 사사로인 한 개인의 집에서 관리인의 일을 하는 사람과 공공 단체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관리를 가리키는 데 쓰였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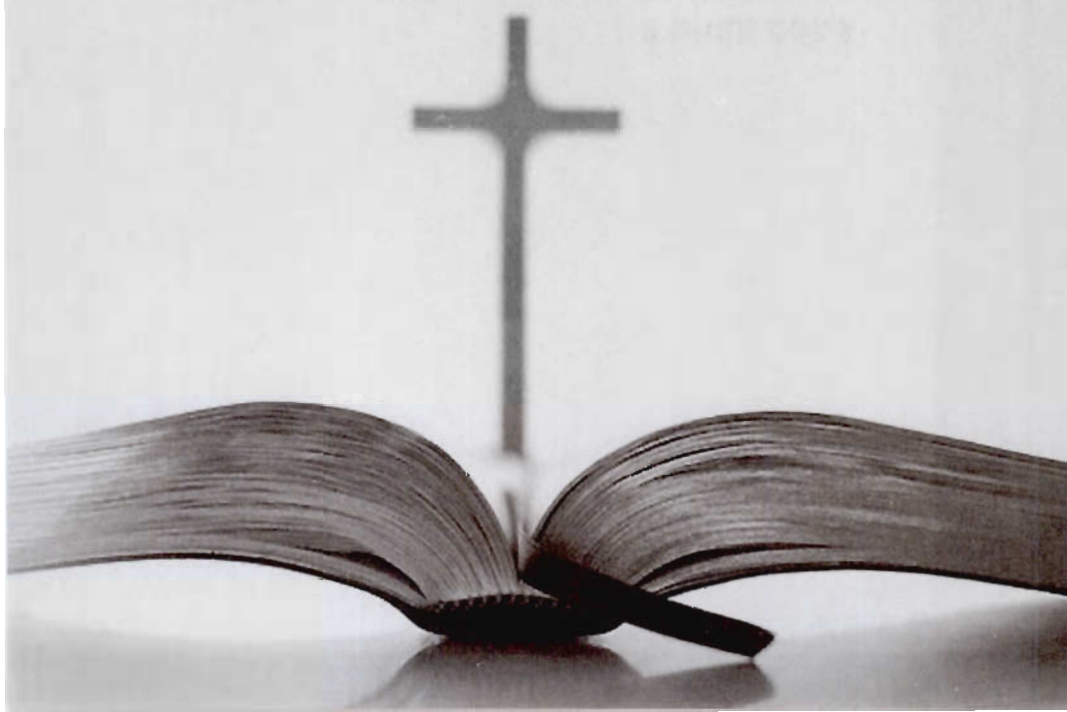
① 서로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을 신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구 · 역 · 예 · 배

6월 구역교재 초점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에 절실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며 거듭난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허사가 됩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며 수많은 공헌과 업적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길 원합니다. 卍

6월 3일

골로새서 3:17~23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시다

6월 10일

사도행전 2:4

오순절의 의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6월 17일

빌립보서 3:7~14

여러분의 헌신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쓰신다

6월 24일

디모데전서 2:1~5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입

민 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개

말 씀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 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1년 6월 3일

1과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 초점 |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시다

| 찬송 |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 본문 | 골로새서 3:17~23

¹⁷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¹⁸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 ²²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²³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요 3:16). 이 복음은 ‘믿는’자마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롬 3:23).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의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길을 주셨습니다(롬 3:21~22,24).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롬 5:8

※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너무나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주인이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골 3:17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합니다. 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행한 것일까요? 만약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거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확실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합니다.

※ 에베소서 5:15~21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십시오.

※ 매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결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방법이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모든 방법은 예수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골 3:18~23

※ 예수님이 나의 방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갈 5:22~24

예수님은 모든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동력은 예수님이여야만 합니다.

고전 10:31 _____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마 5:13~14 _____

여러분은 짠 맛을 냅니까? 빛을 내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짠맛과 빛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마 5:16 _____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사역은 하늘의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전혀 주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삶 전체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기쁘이 받아들이십니까?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 여러분의 방법과 원동력에 영향을 미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롬 14:8

| 믿음의 기도 |

- 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②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살게 하소서.
- ③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2011년 6월 10일

2과

오순절의 의미

| 초점 |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 찬송 |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 본문 | 사도행전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3:6

09H 9:40

58 | 동현의 만나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약속된 세례

오순절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된 세례입니다.

마 3:11 _____

요 1:33 _____

행 1:5 _____

오순절은 성령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기 시작했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진리를 첫 번째로 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행 11:15)라고 보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방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약속된 세례는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행 2:6~8 _____

요 14:16~17 _____

※ 방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십시오(고전 14:2~27 ; 막 16:17 ; 행 19:3~6).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우리의 참 상담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십니다(요 14:25~26).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요 15: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6:7~8 _____

누가 성령세례를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나 성령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고전 3:18~19 _____

고전 3:23 _____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고전 12:12~13).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언제 성령세례를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밝히 알려 주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어 지금도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받고 변화되어 성령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이 여러분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 만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 오순절이 나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로 15:13

| 믿음의 기도 |

- ① 오순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 ② 성령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구역원들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2011년 6월 17일

여러분의 헌신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

| 초점 |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쓰신다

| 찬송 |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 본문 | 빌립보서 3:7~14

⑦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⑧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⑬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⑭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관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달리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어떠한 삶을 의미합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공언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은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앞서 가기 위하여 또는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참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과 우리의 헌신을 비교해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것은?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빌 3:4~7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요청할 때,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따라올지 궁금합니다. 돈을 벌어서 짜릿한 사회생활을 즐기느라 너무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우선하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해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바울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빌 3:8~9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했습니다(고후 11:24~27). 그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기에 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바울은 자신이 아직 부활과 완전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빌 3:10~12

30년간의 사역에서 그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갔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셀 수 없는 핍박을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룬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는가?

바울은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 죄책감들에서 자유했습니다.

빌 3:13

엡 4:30~32

지금껏 어떤 실수를 해 왔든지, 심지어 그것이 심각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잊으십시오(히 6:1~2,11).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빌 3:14 _____

고후 11:28~30 _____

고전 8:9,13 _____

바울은 그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마지막 소원인 것처럼 날마다 살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하는 상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르심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에게 주는 은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헌신과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쓰십니다.

딤후 2:1~3

| 믿음의 기도 |

- ① 참된 헌신의 삶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게 하소서.
- ② 매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구역원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 초점 |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 본문 | 디모데전서 2:1~5

^㉑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㉒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
 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을 하려 함이라 ^㉓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㉔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
 르기를 원하시느니라 ^㉕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딤후 2:1~2 _____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바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롬 13:1).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딤후 2:3~4

하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어떤 신자들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에는 구세주처럼 행동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 3:16

요 3:17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능하거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인간 구세주로 하나님을 격하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라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마 11:28 _____

요 6:37 _____

어떤 일로 인하여 우울하거나 깊은 슬픔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낙담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복음을 영접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요 10:26~28 _____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롬 3:23).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벧후 3:9 _____

요 15:16 _____

롬 8:29~30 _____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책무를 맡겼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신 이후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100% 영접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막 16:15 _____

딤후 1:3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 ②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③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

⁽⁷⁾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¹³⁾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¹⁴⁾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7-14)

오늘 성경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관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달리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공언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은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바울의 헌신과 견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단념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앞서 가기 위하여 또는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참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과 우리의 헌신을 비교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꺼이 해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빌 3:7)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여러분에게 유익하던 어떤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으셨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무흠한 가문 출신으로 존경받았으며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도 더욱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빌 3:4~6).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이러한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요청할 때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따라올지 궁금합니다. 돈을 벌어서 짜릿한 사회 생활을 즐기느라 너무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 건강, 출세, 사업, 학업, 가족, 명예, 직장, 자녀들 또는 자신의 이기심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해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해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 3:8~9)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선한 것을 위해 일합니다! 로마서 10:3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위해 일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4~27).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겪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기에 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어 드림은 여러분이 예수께 행복하여 바친 것으로만 측량되지는 않으며 종종 아직도 내어 드리지 않는 것으로 측량되기도 합니다. 헌신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께 드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당신의 헌신이 측량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측량한 이후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 3:10~12)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부활과 완전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에 더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이루었던 모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간의 사역에서 그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갔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셀 수 없는 핍박을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룬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빌 3:13)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 죄책감들에서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잊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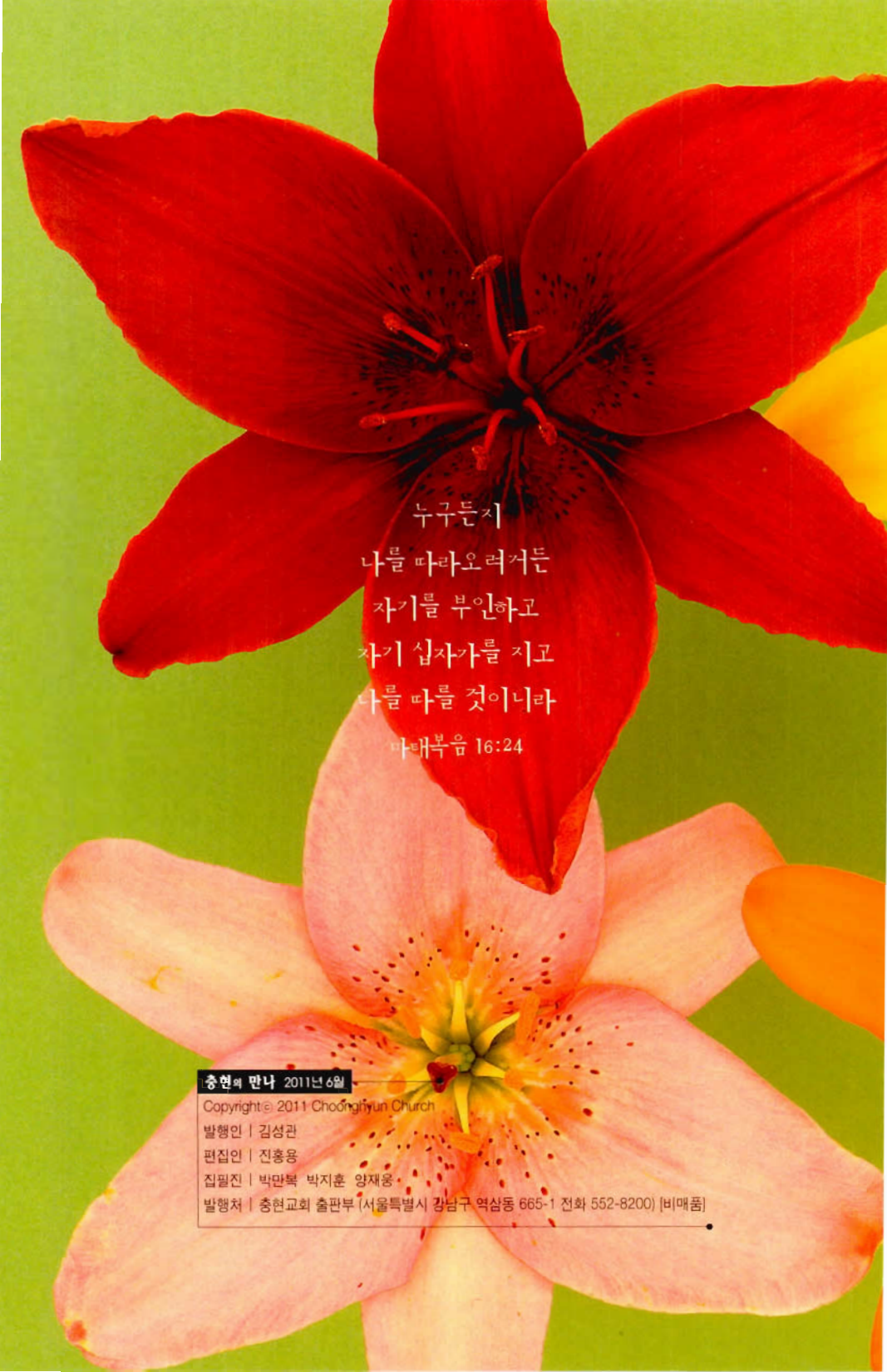
버리신 것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오래된 장벽들은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0~32).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 왔든지, 심지어 그것이 심각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잊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인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히 6:1~2,11).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4)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종종 삶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육상경기 개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는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후 11:28~30). 그는 성도들이 잘 못될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전 8:9,13). 바울은 그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마지막 소원인 것처럼 날마다 살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하는 상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르심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오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헌신과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1년 6월

Copyright © 2011 Chod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박지훈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